

EU 연구혁신 주간 동향 보고

<25.10.08., 한-EU연구협력센터>

○ 마리아 렉틴, ERC 의장으로 재임명(10.1)

- 집행위는 유럽연구위원회(ERC) 마리아 렉틴 의장의 2년 임기 연임을 확정. 새 임기는 2025년 10월 1일부터 2027년 9월 말까지 이어질 예정
- ERC 부의장 3인은 공동 성명을 통해 이번 연임이 차기 EU 연구혁신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을 앞두고 중요한 연속성을 제공한다고 평가

○ 유럽의회 예산위원회, 2026 호라이즌 유럽 예산 6,000만 유로 추가 편성 제안(10.7)

- 예산위원회는 2026년 호라이즌 유럽 예산에 6,000만 유로를 추가로 편성할 것을 제안(유럽이사회는 집행위의 증액안을 모두 삭감하려는 입장이지만, 유럽의회는 증액 추진 중)
- 에라스무스+ 프로그램 예산도 논란. 이사회는 예산 증액안(3억 500만 유로)을 2억 5,800만 유로로 삭감하고자 하는 반면, 유럽의회는 오히려 해당 프로그램에 추가로 500만 유로를 배정할 것을 요구
- 예산위원회 총괄보고관 할리츠키 의원은 “우선순위는 연구, 혁신, 경쟁력 강화”라며 호라이즌 유럽과 에라스무스+ 등 관련 프로그램 확대 필요성을 강조

○ EU 지역별 경쟁력 지표 분석 ... 뮌헨, 파리, 마드리드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선정(10.1)

- EU 집행위 공동연구센터(JRC)는 EU 디지털 생태계 내 R&I 활동과 스타트업 현황을 분석하고 EU 지역별 경쟁력을 평가
- 분석 결과, 독일 뮌헨, 프랑스 파리, 스페인 마드리드 등이 디지털 연구혁신 분야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선정됨

○ (기타) ▲유럽연합의 외국 데이터베이스 의존도 축소 필요성(10.2) ▲민주국가에서도 확산되는 학문 자유 침해, Scholars at Risk 발간 보고서 경고(10.2) ▲MSCA, 유럽 내 연구 경력 개발을 위한 ‘Choose Europe for science’ 공모 개시(10.1)